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미사 시간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 아 세 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5월 성모성월

- 목주기도 : 5/1(월)부터 매일미사 30분전 시작
- 성모의 밤 행사 : 5/24(수) 저녁 7시 미사 후
- ※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정하여 신자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와 선행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성모성월의 목적은 인간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맛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1인 1구좌 후원 부탁드립니다.)

◎ 예비자 입교식

- 5월 7일(일) 10시 30분 / 교중 미사 중

◎ 알 림

- 5월 10일(수) 11시 소성전에서 경로당 월례미사가 있습니다.
- 5월 11일(목) 8시 30분 성모성심회 갑곶 성지순례 있습니다.
- 5월 12일(금) 지역별 병자영성체가 있습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위령봉사회	5월 7일(일), 11:40	강 당
M.E.	5월 7일(일), 11:50	6교실
임원모임	5월 10일(수), 20:00	식 당
자녀를 위한 기도	5월 11일(목), 19:40	1교실

◎ 본당 임원 성지순례

- 대 상 : 본당 임원 (사목위원, 구역장, 반장)
- 순례기간 : 2023.5.18.(목) ~ 5. 20.(토) 2박 3일
- 순 례 지 : 제주도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대 위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주일(5/1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구역	청 소	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4월 26일 ~ 5월 2일)

- 교 무 금 8,621,000원
- 주일헌금 5,110,100원
-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 1,582,000원
- 나눔 바자회 행사 후원

손상민20만원 정○○100만원 임종남 5만원

이남식10만원 임경수10만원 강정자 5만원

조○○ 5만원 유○○ 5만원 구상호10만원

조윤서10만원 조영서10만원 오성환10만원

김중성10만원 홍종만10만원 박홍민10만원

김춘화 5만원 김문주 5만원 신춘옥20만원

• 감사헌금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5/7	손진희	심재순	오성환	김진수	최상림	장익근	손정주
5/14	구민서	조흥환	신종구	김영균	유숙중	하재민	김성해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5/7	이운영	박승환	김광수	김영배	이화봉
5/14	이화봉	옥윤필	김인기	박용환	최창열

화답송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269. 이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살인자조차도 개인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몸소 그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형에 대한 단호한 거부는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마다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최악의 범죄자에게서 그의 인간 존엄을 부인하지 않을 때, 나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살아갈 기회를 모든 이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70. 모든 형태의 폭력에 굴복하고 싶은 의심과 유혹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서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도록 권유합시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리라”(이사 2,4). 우리에게,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력에 흥분한 제자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마태 26,52). 이 말씀에 옛 훈계가 울려 퍼집니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자도 사람에게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창세 9,5—6) 당신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예수님의 이 반응은 수 세기의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호소로 와닿습니다.

제 8장

세상의 형제애를 위하여 봉사하는 종교

271. 다양한 종교들은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피조물로서 지닌 가치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형제애의 건설과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데 소중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종교인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는 그저 외교나 예의나 관용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 주교들의 가르침대로 “대화의 목표는 우정과 평화와 화합을 이룩하고, 진리와 사랑의 정신으로 윤리적 영적 체험과 가치들을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